



보성문화예술회관, 다양한

콘텐츠 · 기획공연 큰 호응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제공 '문화보성' 꽂파워



보성군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획공연으로 군민의 감성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 5월 문화예술 회관 개관 이후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2억여 원을 확보하며 다양한 우수공연 및 문화교육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 193회의 다채로운 공연과 교육으로 2만7천여명의

관람객들이 대녀갔다.

지난 1월 빅맨싱어즈가 선사하는 쉽고 재미있는 팝페라 작은 음악회를 시작으로 클래식, 국악, 연극, 뮤지컬, 미당극, 콘서트, 토크쇼 등 35회, 추억의 청춘극장 10회, Sac on Sceen 공연영상 11회 대관(공연, 행사, 영화상영 등) 63회 문화예술프로그램 31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6회, 학창단 운영 27회 등이 운영

보성=안구일 기자

구례군, 열린혁신 추진 평가우수 지자체 선정

구례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열린 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민이 주인인 행정'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주민 참여 행정과 행정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지자체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전국 61개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례군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지침위원회 운영과 지역기업과 함께한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자연 드립파크 신부인과 지원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한 국제대회 성공 개최(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웃스 팍 트레이일워커),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과 현장 중심 생활공정책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전남동부지재본부장

장성 인재 키우자 '한마음 한뜻'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 보건소 포상금 등 기탁

장성 인재를 키우는데 장성군 기관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섰다.

장성군은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오종순)가 장성군을 찾아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300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매년 전남 지역의 인재를 위해 꾸준한 장학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오종순 회장은 "올 해에도 전문건설업의 상상 발전을 위해 힘써준 장성군에 감사드리고 지역 인재를 키우는데 힘을 보태고자 기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날 장성군 보건소도 장학

금을 3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는 보건소가 '2016 출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한 포상금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장성군보건소는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저출산극복사업, 출산장려시책평가,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미숙 보건소장은 "직원들과 함께 포상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뜻에서 장성장학회에 기탁하게 됐다"며 '옐로우시티 장성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작은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5관왕 달성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함평군이 2017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5관왕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예방관리 사업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장을 수상했다.

이달 초에 전남도가 주관한 식품·공중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업무 평가에서도 2개 부문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2017년도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표장을 수상하며 5관왕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국 광역시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함평군은 지역축제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305곳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주방관리, 친절서비스, 앞집시 제공 등 컨설팅을 실시했다.

깨끗한 환경, 음식, 복장 갖추기 등 음식점 3대 청결운동도 적극 추진했다.

함평군은 한우비빔밥 음식테마 거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영업주 집합교육, 식중독 예방요령 문자발송 등에 힘썼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영업자 자율 위생점검제를 추진했으며 건강한 식단 실천을 위한 나트륨 과잉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음식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해 13명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전국 명품 한우와 단호박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외에도 외식업소 경영자를 대상으로 외식경영 선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대군민 홍보활로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외식업 함평군지부와 함께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먹거리 관광객이 많이 찾아,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위생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고흥산 '개체굴' 해외시장 고부가치 수산물 각광



약을 성사시켜 그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있다.

이번 개체굴 양식에 성공한 어가 중 한 곳인 정준례(동일면 구룡수산 대표)氏는 30여 년간의 땀이길 양식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접목시켜 이번 개체굴 양식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현장을 답사한 수출업체, 국내 유통업체 모두 감탄을 금지 않을 정도로 고흥산 개체굴은 알이 꽉 차고 탱글탱글하여 프랑스산 굴보다 더 좋다는 호평을 들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존 굴 양식의 대부분이 알굴(덩이굴)로 유통되고 있으나 어촌인구 노령화 및 어려운 작업 환경상 굴 양식변경이 절실히 실정이라"며 "껍질까지 판매하는 개체굴 양식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늘어나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지재본부장

고흥군은 12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한 개체굴이 수요증기에 힘입어 현재까지 총 40톤, 8천 4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체굴은 내수용 덩이굴(알굴) 판매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7년 초부터 나로도해역과 해창

만 하단부 해역에서 시범 양식을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로 중국 수출을 목표로 어기의 소득과 우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이미 지난 8월 2차례 군은 고흥산 개체굴을 중국과 홍콩 바이어를 통해 100톤 3억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금번 용접교육은 영하의 추운 날

영광군, 생활용접 중급과정 교육 실시

영광군이 지난 21일, 22일 이를 동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용접 중급과정 교육이 교육생들의 열기로 활활 타오랐다.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매년 60여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용접 교육이 호응이 좋아 중급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고 생

활용접 기초과정 수료자 중 20명을 업선해서 가스 용접 등 고난도 용접교육을 실시하고 용접과정 중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소방 안전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금번 용접교육은 영하의 추운 날

씨와 1일 6시간씩 진행되는 고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 전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선 이론교육 후 실습교육 실시 등 용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그동안 어끼며 배운 솜씨로 대충 해왔던 용접 실력에서 벗어나 교육생 모두가 어엿한 용접기술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